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04, Vol. 17, No. 4,

개인의 성과 성역할 정체감이 대화의 중단과 대화량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남녀의 대화에서 개인의 성과 성역할 정체감이 대화의 중단과 대화량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낯선 남녀 대학생들을 두 사람씩 쌍(44쌍)을 이루게 하고 주어진 주제에 대해 실험실에서 10분 동안 대화하게 하였다. 부정적 중단, 긍정적 중단, 대화량 각각에 대해 설정된 9개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2×4의 요인설계가 사용되었다. 대비분석 결과 부정적 중단의 사용에서 성차는 없었고, 남성적 남성과 여성 및 양성적 남성들이 여성적 그리고 미분화의 남성 및 여성들보다 유의하게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중단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여성적 여성들이 남성적, 양성적 그리고 여성적 남성들보다 더 많이 사용하나 여성들간에는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대화량 역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유의하게 더 많았으나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부정적 중단은 성별보다는 성역할 정체감의 영향을 받고 긍정적 중단과 대화량은 성역할 정체감보다 성별의 영향을 받는 언어특성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성역할 정체감은 개인의 성격특성으로 통합되어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주므로 언어사용 패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주요어: 대화, 부정적 중단, 긍정적 중단, 대화량

남녀의 언어 사용패턴에서 자주 논의되는 문제로서 대화에서의 중단과 대화량이 있다. 우선 중단(interruption)이란 화자가 이야기를 끝내기도 전에 대화상대자가 이야기를 시작함으로써 동시발생적인 발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화자들간의 대화차

례를 과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Zimmerman & West, 1975). 다시 말하면 대화상대자가 화자의 빌언을 방해함으로써 발언권을 빼앗는 행위에 해당한다. 중단은 연구자에 따라 자주 상이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그 예로서 Zimmerman과

교신저자: 장휘숙, E-mail:hsjang@cnu.ac.kr

West(1975)는 중단을 방해적 발성과 비방해적 발성으로 구분하였고, Smith-Lovin과 Brody(1989) 및 Johnson(1994)은 중단의 내용을 기초로 지지적 혹은 긍정적 중단과 부정적 중단 및 중립적 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중단에 관한 43개의 연구를 통합분석한 Anderson과 Leaper(1998)는 유친적 중복과 침입적 중단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방해적 발성이나 부정적 중단 혹은 침입적 중단은 거의 동일한 의미로서 화자가 자신의 대화 차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대화상대자가 화자의 말에 대한 부동의나 반대를 표하기 위하여 혹은 관련없는 주제를 말하기 위하여 이야기를 시작하여 화자의 발언을 중단시키는 행위로서 화자의 발언권을 빼앗음으로써 대화의 구조를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 대조적으로 비방해적 발성이나 지지적, 긍정적 중단 및 유친적 중복 또한 거의 동일한 의미로서 화자가 이야기하는 동안 “그래”, “그렇지”, “음”과 같이 화자의 의견에 동의나 공감을 표하거나 맞장구치기 혹은 화자의 말을 완성시키기 위한 발성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정적 중단은 대화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긍정적 중단은 대화의 흐름을 돋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중립적 중단은 내용에 대한 평가없이 화자의 말을 반복하거나 너무 짧아서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발성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부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하고(Zimmerman & West, 1975; West & Zimmerman, 1983) 여성들은 긍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한다(장휘숙, 최영임, 2004; Anderson & Leaper, 1998)고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부정적 중단은 우월성이나 힘 혹은 지위의 표현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성역할 고정관념적으로 힘이 있는 남성들이 주로 사용하고, 긍정적 중단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여성들이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Anderson & Leaper, 1998; Feldstein & Welkowitz, 1987). 따라서 중립적 중단이나 긍정적

중단은 대화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은 화자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반대함으로써 대화차례를 파괴하는 부정적 중단만을 순수한 중단으로 가정하고 부정적 중단과 관련된 변인들을 연구하였다.

흥미롭게도 부정적 중단에 관한 연구결과들은 시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수행된 연구들(Roger & Schumacher, 1983; West & Zimmerman, 1983; Zimmerman & West, 1975)은 일관성있게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부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하고, 남성들이 여성들에 의해 부정적 중단을 당하는 것보다 여성들이 남성들에 의해 부정적 중단을 더 많이 당한다고 보고한다. 연구자들에 의하면,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사회적으로 더 높은 지위와 힘을 갖기 때문에, 중단은 우월한 남성들의 전형적 특성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에 이루어진 Johnson(1994)의 연구나 Carli(1990)의 연구는 부정적 중단의 사용에서 성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하였고 1965년부터 1996년까지의 논문들을 통합분석한 Anderson과 Leaper(1998)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부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효과크기는 대단히 적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연구가 수행된 시기에 따라 부정적 중단에 미치는 성의 효과가 달라졌다고 주장하고 남녀 평등사회로의 변화가 남녀가 사용하는 부정적 중단에서의 차이를 완화시켰다고 강조하였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장휘숙과 최영임(2004)의 연구에서도 부정적 중단의 사용에서 화자의 성이나 대화상대자의 성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고 대화당사자들간의 친밀도에 따라서만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가 남녀 평등사회로 변화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긍정적 중단의 사용에서는 여전히 성차를 나타내어 부정적 중단에 미치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가정하게 하였다.

일찍이 Broverman, Vogle, Broverman,

Clarkson, 및 Rosenkrantz(1972)와 Ealgy(1987)같은 연구자들은 여성들은 양육적, 표현적 특성에 기초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그리고 남성들은 자기 주장적, 경쟁적 특성에 기초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대화를 한다고 주장하였고 Zimmerman과 West(1975) 및 West와 Zimmerman(1983)과 같은 초기의 의사소통 연구자들도 남성성을 중단의 중요한 예언자로 간주한 바 있다. 즉 도구적 특성으로 대표되는 남성성은 대인관계의 친밀성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반응하게 하는 반면, 표현적 특성에 해당하는 여성성은 대인관계의 친밀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반응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남녀의 대화에서 개인의 성역할 정체감이 중단의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성역할 정체감이란 개인이 여성이나 남성으로서 자신에 대해 갖는 느낌으로 개인의 성격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고와 태도는 물론 행동과 생활방식에 영향을 주므로(장희숙, 2002), 대화에서의 중단 역시 개인이 지니고 있는 성역할 정체감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일찍이 McCall과 Simmons(1966) 및 Stryker(1980)는 성역할 정체감을 사회적 지위와 연합된 내면화된 의미체계로 개념화함으로써 남녀간의 대화에서 개인의 사회적 지위는 성역할 정체감을 통하여 표현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여기에 대한 경험적 연구로서 91명의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성간의 대화를 연구한 Drass(1986)는 개인의 성 그 자체보다는 성역할 정체감이 언어사용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남녀 모두 자신을 남성적으로 지각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의 말을 유의하게 더 많이 중단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근 172명의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Basow와 Rubenfeld(2003) 역시 개인의 성유형화된 특성이 성별 그 자체보다 의사소통 반응과 더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높

은 양육적/표현적 특성(여성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타인들이 고민에 빠져 있으면 동정을 보이는 것은 물론 자신의 고민에 대해 타인들이 동정을 보일 때는 위안을 얻고 고마워할 가능성이 더 많았으나 대화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여 대화 주제를 변화시킬 가능성은 매우 적었다. 대조적으로 높은 기계적/활동적 특성(남성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타인들이 고민에 빠져 있으면 동정하기보다는 충고할 가능성이 더 많아 차이를 보였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의사소통 연구자들이 성역할 정체감에 기인된 특성들을 오로지 성차의 문제로 해석함으로써 성역할 정체감의 영향을 무시하였다고 강조하고 의사소통에서 성차로 생각되는 특성들은 실제로 성역할 정체감과 관련된 특성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Edwads와 Hamilton(2004)도 개인의 성보다는 성역할 정체감이 의사소통에서 상황에 대한 협동적 추론의 더 나은 예언자임을 확인한 바 있다. 즉 여성적 특성인 높은 수준의 양육성은 대화상황에 대해 더 협동적인 추론을 하도록 하고 이성과의 의사소통에서의 어려움을 감소시켰다고 주장하였다.

남녀간에 차이가 있다고 인식되는 또 다른 문제로서 대화량이 있다. 대화량이란 대화시에 남성과 여성 중 누가 더 말을 많이 하는가의 문제이다. 우리 사회에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말을 더 많이 한다는 고정관념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분야에 관한 56개의 연구를 통합분석한 James와 Drakich(1993)는 연구의 61%에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말을 더 많이 하였고 29%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단지 4%에서만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말을 더 많이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Tannen(1990)같은 연구자는 남성들은 공적 상황에서 말을 많이 하고 여성들은 사적 상황에서 말을 더 많이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즉 여성들은 대화를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기 때

문에 사적 상황에서 말을 더 많이 하는 반면, 남성들은 그들의 지위와 권위를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공적 상황에서 말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 중에도 남성들보다 말을 적게 하는 여성들이 있을 뿐아니라 남성들 중에도 여성들보다 말을 더 많이 하는 남성들이 있으므로 개인의 성만이 대화량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실험실에서 남성과 여성이 대화할 때, 사용되는 부정적 및 긍정적 중단과 대화량에 미치는 성과 성역할 정체감의 영향을 규명하려고 한다. Anderson과 Leaper(1998)의 주장대로, 남녀 평등사회로의 변화는 남녀가 사용하는 부정적 중단의 사용에서의 차이를 완화시킬 수 있기는 하겠지만, 성이나 성역할에 대한 개인의 신념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고 쉽게 변화하지 않는 속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그것들의 영향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성차별적, 성역할 고정관념적 요소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으므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부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하고 남성적 및 양성적 남성과 여성들이 여성적 및 미분화의 남성이나 여성들보다 부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또한 긍정적 중단과 대화량도 성의 영향 뿐아니라 성역할 정체감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으므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긍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물론 여성적 성역할 정체감을 지니고 있는 여성들이 남성적, 양성적, 혹은 미분화의 성역할 정체감을 지닌 남성이나 여성들보다 긍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하고 더 말을 많이 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장 휘숙과 최영임(2004)의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긍정적 중단은 전형적인 여성적 특성으로 인식될 뿐아니라 사적 상황에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말을 많이 한다는 Tannen(1990)의 연구결과를 감안

할 때, 이 연구에서 설정한 사적인 실험실 상황에서 여성적 여성과 여성적 남성을 비교했을 때 여성적 여성들이 긍정적 중단은 물론 대화량도 더 많을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 가설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정적 중단

가설 1: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부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다.

가설 2: 남성적 남성과 여성들이 여성적, 미분화의 남성이나 여성들보다 부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다.

가설 3: 양성적 남성과 여성들이 여성적, 미분화의 남성이나 여성들보다 부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다.

긍정적 중단

가설 1: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긍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다.

가설 2: 여성적 여성과 남성들이 남성적, 양성적, 미분화의 남성이나 여성들보다 긍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다.

가설 3: 여성적 여성들이 여성적 남성들보다 긍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다.

대화량

가설 1: 여성들의 대화량이 남성들의 대화량보다 더 많을 것이다.

가설 2: 여성적 여성들의 대화량이 남성적, 양성적, 미분화의 남성이나 여성들의 대화량보다 더 많을 것이다.

가설 3: 여성적 여성들의 대화량이 여성적 남성들의 대화량보다 더 많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자

C대학교에서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학생들 중에서 실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남녀 학생 100명을 모집하였다. 낯선 사람들로 짹지어진 88명(남성: 44명, 여성: 44명)의 학생들이 최종 실험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남자 대학생 19.43($SD=1.354$)세 그리고 여자 대학생 19.25($SD=1.314$)세였다.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학기말 성적에 가산점이 부가되었고 실험은 2004년 3월 초부터 약 한 달간 실시되었다.

절차

실험에 자원한 100명의 연구대상자들을 남녀로 짹을 지어 50개의 혼성쌍에 무선 할당하였다. 각 쌍이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점(1점: 전혀 친하지 않다, 5점: 매우 친하다) 리커트 타입의 단일문항을 사용하여 친밀성 여부를 검사하였다. 이 검사에서 1점과 2점에 응답한 사람들만을 낯선 사람으로 판정함으로써 최종 44쌍의 혼상쌍이 구성되었다. 6쌍은 서로 잘 아는 사람들로 확인되어 실험에서 제외되었다.

실험에 사용할 토론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대학생의 동거문화”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대학생들(132명)에게 읽게 하고 그 내용이 남성적 주제인지, 여성적 주제인지 혹은 중립적 주제인지를 평가하게 하였다. 평가결과 93.7%(123명)의 학생들이 제시된 내용을 성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중립적 주제라고 응답함으로써 이 연구의 토론주제로 선정되었다.

각 쌍의 남녀가 약속시간에 맞추어 실험실에 도착하면 동거문화에 관한 의견조사를 할 것이라고

알린 후에 토론주제인 “대학생의 동거문화”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주고 5분 동안 읽게 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이 주어진 글을 충분히 읽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연구자는 실험대기실로 돌아오고 10분 동안 두 사람이 편안하게 토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토론 내용은 연구대상자들의 양해를 얻어 녹음되었고 그 내용은 축어록의 형태로 기록되었다. 실험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두 사람의 연구보조자가 중단의 빈도를 계산하였으며, 평정자간 신뢰도는 부정적 중단 .96($p<.001$), 긍정적 중단 .93($p<.001$)으로서 신뢰로운 수준이었다. 실험이 끝난 후 연구자는 사후실험 보고를 실시하였고, 이 연구에서 나온 모든 결과는 오로지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하였다.

실험시작 전에 모든 연구대상자들에게 성역할 정체감 검사(KSRI)가 실시되었다. KSRI는 Bem(1974)이 개발한 BSRI(Bem Sex Role Inventory)에 기초하여 정진경(1990)이 제작한 한국 성역할 검사로서 20개씩의 남성성 문항과 여성성 문항 그리고 긍정성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남성성, 여성성 그리고 긍정성 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각각 .89, .82, .85였다. 전체 응답자의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의 중앙치를 계산하여,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가 모두 높은 사람은 양성적 집단, 남성성 점수는 높고 여성성 점수는 낮은 사람은 남성적 집단, 남성성 점수는 낮고 여성성 점수는 높은 사람은 여성적 집단 그리고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가 모두 낮은 사람은 미분화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종속변인의 측정

종속변인인 대화의 중단과 대화량에 미치는 개인의 성과 성역할 정체감의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먼저 중단을 측정하였다. 중단은 Zimmerman과 West(1978)의 분류를 따라 부정적 중단과 긍정적 중단으로 구분되었다. 부정적 중단은 청자가 화자의

말에 부동의를 표현하거나 반대의견을 제시하거나 혹은 주제와 동떨어진 발언을 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또한 긍정적 중단은 청자가 화자에게 ‘음’이나 ‘예’와 같은 동의나 동조를 나타내는 발언을 하거나 화자의 말을 반복하는 발언으로 규정하였다. 부정적 중단과 긍정적 중단 모두 성공한 중단만을 사용하였다. 중단의 비율은 청자가 화자의 대화를 중단시킨 빈도를 계산한 후 청자가 대화에 참여한 시간(초 단위)으로 나누어 줌으로써 계산되었고 다시 분단위로 환산되었다 [(중단의 빈도/대화에 참여한 시간) $\times 60$]. 처음부터 분단위로 계산을 하면 중단을 나타내는 미세한 발성을 놓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 뿐 아니라 최종값을 초단위로 하면 소수점 이하의 값이 산출되기 때문에 초단위로 계산한 후 분단위로 변환하였다. 대화량은 전체 대화시간(10분) 동안 연 구 대상자가 대화에 참여한 시간을 초단위로 측정하여 계산되었다.

결 과

개인의 성과 성역할 정체감이 부정적 중단과 긍정적 중단 및 대화량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2(성: 남,녀) \times 4(성역할 정체감: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의 요인설계가 사용되었다. 두 가지 유형의 중단 비율과 대화량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본인의 성과 성역할 정체감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대비분석을 실시하였다.

부정적 중단

개인의 성과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부정적 중 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을 기초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부정적 중 단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는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비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남성과 여성들의 중 단 사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부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는 가설 1은 기각되었다.

표 1. 개인의 성과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부정적 중단비율의 평균과 표준편차

성	성역할 정체감(N)	평균	표준편차
남성	여성성(9)	.960	0.700
	남성성(15)	1.975	1.183
	양성성(12)	2.530	1.480
	미분화(8)	1.929	.769
	전 체(44)	1.910	1.225
여성	여성성(11)	.936	.724
	남성성(11)	2.370	1.390
	양성성(9)	1.347	.566
	미분화(13)	1.198	.558
	전 체(44)	1.456	1.011
전체	여성성(20)	.947	.694
	남성성(26)	2.142	1.263
	양성성(21)	2.023	1.300
	미분화(21)	1.477	.725
	전 체(88)	1.683	1.140

남성적 남성과 여성들이 여성적, 미분화의 남성이나 여성들보다 부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는 가설 2에 대한 대비분석 결과, 남성적 남성들은 여성적 남성($F(1,22)=5.423, p<.05$) 및 여성적 여성($F(1,24)=6.607, p<.05$)보다 유의하게 부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하였으나 남성적 남성들은 미분화 남성 및 미분화 여성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적 여성들은 여성적 여성($F(1,20)=9.196, p<.01$), 미분화 여성($F(1,22)=7.805, p<.01$) 그리고 여성적 남성($F(1,18)=7.623, p<.05$)보다 부정적 중단을 유의하게 더 많이 사용하였으나 미분화 남성들과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2에 제시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남성적 남성과 남성적 여성들이 여성적 혹은 미분화의 남성이나 여성들보다 부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또한 양성적 남성과 여성들이 여성적, 미분화의 남성이나 여성들보다 부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

용할 것이라는 가설 3에 대한 대비분석 결과, 양성적 남성들은 여성적 남성($F(1,19)=8.598, p<.01$), 여성적 여성($F(1,21)=10.423, p<.01$), 미분화 여성($F(1,23)=9.143, p<.01$)보다 부정적 중단을 유의하게 더 많이 사용하였으나 미분화 남성과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양성적 여성들은 여성적 여성과 남성 및 미분화의 여성이나 남성들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양성적 남성들만이 부정적 중단을 유의하게 더 많이 사용한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부정적 중단의 사용에서 성차는 없고 남성적 남성과 남성적 여성 및 양성적 남성이 여성적 남성, 여성적 여성, 및 미분화의 여성들보다 부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정적 중단은 성차의 문제이기보다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언어 특성이라고 볼 수 있었다.

긍정적 중단

표 2. 개인의 성과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긍정적 중단비율의 평균과 표준편차

성	성역할 정체감(N)	평균	표준편차
남성	여성성(9)	.939	0.801
	남성성(15)	1.537	0.894
	양성성(12)	1.987	1.298
	미분화(8)	2.870	2.615
	전 체(44)	1.780	1.053
여성	여성성(11)	5.009	3.166
	남성성(11)	3.607	2.695
	양성성(9)	3.222	2.622
	미분화(13)	2.396	2.247
	전 체(44)	3.521	3.297
전체	여성성(20)	3.178	2.722
	남성성(26)	2.413	1.925
	양성성(21)	2.516	2.459
	미분화(21)	2.577	2.341
	전 체(88)	2.650	1.867

개인의 성과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긍정적 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대비분석 결과,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긍정적 중단을 유의하게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F(1,86)=8.842, p<.01$)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긍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는 가설 1을 지지하였다.

여성적 여성과 남성들이 남성적, 양성적, 미분화의 남성이나 여성들보다 긍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는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대비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성적 여성들은 남성적 남성 ($F(1,24)=8.205, p<.01$) 그리고 양성적 남성 ($F(1,21)=4.752, p<.05$)보다 유의하게 긍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적 남성들은 남성적, 양성적, 미분화의 남성이나 여성들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여성적 여성들의 경우에만 가설 2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또한 여성적 여성들이 여성적 남성들보다 긍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는 가설 3이 지지됨으로써($F(1,18)=8.141, p<.01$) 여성적 여성들은

미분화의 남성을 제외하고 남성적 남성과 양성적 남성은 물론 여성적 남성들보다 긍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할 뿐 아니라 여성들간에는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차이가 없어 긍정적 중단은 개인의 성역할 정체감보다는 성차의 영향을 받는 언어 특성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대화량

개인의 성과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대화량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대비분석 결과, 여성들의 대화량이 남성들의 대화량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가설 1은 지지됨으로써($F(1,86)=7.308, p<.01$),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여성적 여성들의 대화량이 남성적, 양성적, 미분화의 남성이나 여성들의 대화량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가설 2에 대한 대비분석 결과, 여성적 여성들은 양성적 남성들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나타내었을 뿐($F(1,21)=4.002, p=.059$), 남성적, 양성적, 미분화의 남성이

표 3. 개인의 성과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대화량의 평균과 표준편차

성	성역할 정체감(N)	평균	표준편차
남성	여성성(9)	210.444	63.988
	남성성(15)	238.200	100.011
	양성성(12)	214.583	64.310
	미분화(8)	227.250	69.764
	전 체(44)	224.099	77.486
여성	여성성(11)	272.000	73.340
	남성성(11)	238.454	81.265
	양성성(9)	279.555	81.066
	미분화(13)	291.230	99.006
	전 체(44)	270.840	84.587
전체	여성성(20)	244.300	74.445
	남성성(26)	238.307	90.790
	양성성(21)	242.428	77.388
	미분화(21)	266.857	92.727
	전 체(88)	247.465	84.004

나 여성들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가설 2는 기각되었다. 그러나 여성적 여성들의 대화량이 여성적 남성들의 대화량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가설 3에 대한 대비분석 결과에서는 여성적 여성들이 여성적 남성들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F(1,18)=3.901, p=.064$). 종합하면 여성적 여성들과 남성들은 대화량에서 남성적, 양성적, 미분화의 남성이나 여성들과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여성적 여성들의 대화량이 여성적 남성들의 대화량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있어, 대화량도 긍정적 중단과 유사하게 성역할 정체감보다는 성차에 의해 영향을 받는 언어 특성일 것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었다.

논 의

이 연구는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남녀간의 대화에서 개인의 성과 성역할 정체감이 대화의 중단과 대화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실험에 자원한 남녀 학생들을 혼성쌍에 무선 할당하였고 낯선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남녀 쌍을 제외한 44쌍의 혼성쌍이 구성되었다. 각 쌍은 실험실에서 10분 동안 대화하였고 대화내용은 녹음되었다. 부정적 중단, 긍정적 중단 및 대화량 각각과 관련하여 설정된 3개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2×4의 요인설계가 사용되었다. 대비분석 결과, 부정적 중단의 사용에서 유의한 성차는 없었으나 남성적 남성들이 여성적 남성과 여성적 여성보다 그리고 남성적 여성들은 여성적 여성, 미분화 여성 및 여성적 남성보다 부정적 중단을 유의하게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성적 남성들은 여성적 남성, 여성적 여성, 미분화의 여성보다 부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와 3에 가정한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키지는 못했지만, 연구대상자들의 제한된 수를 감안할 때 부정적 중단은 성차의 문제이기보다는 성역할 정체감에 따

라 차이를 보이는 개인적 특성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다.

긍정적 중단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적 여성들이 미분화의 남성들을 제외하고 남성적 남성, 양성적 남성, 여성적 남성보다 긍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여성들 사이에서는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차이가 없어 긍정적 중단은 개인의 성역할 정체감보다 성차의 영향을 받는 언어 특성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대화량 역시 긍정적 중단과 유사하게 여성들의 대화량이 남성보다 더 많았고 여성적 여성들이 양성적 남성 및 여성적 남성들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보여 성역할 정체감보다는 성차에 의해 영향을 받는 언어특성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종합하면 부정적 중단은 성별 보다는 성역할 정체감의 영향을 크게 받는 반면, 긍정적 중단과 대화량은 성역할 정체감보다 성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볼 수 있었다.

우선 부정적 중단의 사용에서 성차가 없어 장 휘숙과 최영임(2004)의 연구와 Johnson(1994) 및 Carli(1990)의 연구와 일치하였으나 남성들이 여성들 보다 부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1970년대와 80년대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Anderson과 Leaper(1998)의 주장대로 우리 사회가 남녀 평등사회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들이 이제 더 이상 상대방의 대화를 무례하게 중단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된 결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성적 남성과 남성적 여성 및 양성적 남성이 여성적 남성, 여성적 여성 및 미분화의 여성들보다 부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Edwards와 Hamilton(2004), Basow와 Rubenfeld(2003) 및 Drass(1986)의 주장과 일치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비록 양성적 여성들이 여성적 및 미분화의 남성이나 여성들보다 부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 연구의 제한

된 연구대상자 수를 감안할 때 부정적 중단은 개인의 성보다는 성역할 정체감의 영향을 받고 특히 남성성은 부정적 중단 사용의 중요한 예언변인임이 확인될 수 있었다.

그러나 긍정적 중단에서는 장휘숙과 최영임(2004)의 연구와 Anderson과 Leaper(1998) 및 Aries(1996)의 연구와 일치되게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여성적 여성들이 미분화의 남성들을 제외하고 남성적 남성과 양성적 남성은 물론 여성적 남성들보다 긍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하고 여성들간에는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차이가 없어 긍정적 중단은 개인의 성역할 정체감보다는 성차의 영향을 받는 지극히 여성적인 언어특성이라는 해석이 가능하였다. 다시 말하면 여성들은 남성과의 대화도중 남성들보다 화자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거나 맞장구치거나 아니면 상대편의 말을 완성시키기 위한 지극히 관계지향적인 발성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이다. 대화량에서도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말을 많이 하여 사적인 상황에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말을 많이 한다는 Tannen(199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고 긍정적 중단에서와 유사하게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공적인 상황에서는 Tannen(1990)의 제안대로, 남성들이 그들의 지위와 힘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여성들보다 더 말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사적 상황과 공적 상황을 함께 포함하는 연구가 수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부정적 중단은 성별보다는 성역할 정체감의 영향을 받고 긍정적 중단과 대화량은 성역할 정체감보다 성별의 영향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정적 중단은 화자의 발언권을 빼앗고 대화의 차례를 파괴하는 무례한 행동이므로 과거에는 힘이 있는 남성들이 더 많이 사용하였다고 할지라도 이제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화에서 타인의

발언을 무례하게 중단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가 남녀 동등사회를 지향함에 따라 남성들의 부정적 중단 사용은 감소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개인의 성격특성으로 통합된 성역할 정체감은 부정적 중단의 사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Stryker(1980)나 Drass(1986)의 주장대로 개인의 정체감이 사회적 지위와 연합된 내면화된 체계라면 남녀간의 대화에서 사회적 지위나 우월성은 성역할 정체감을 통하여 표현될 것이고 그것은 부정적 중단의 사용으로 나타날 것이므로 지위와 우월성을 표상하는 남성성을 지닌 남성과 여성들이 부정적 중단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지극히 타당한 결과일 수 있을 것이다. 대조적으로 긍정적 중단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언어행동도 아닐 뿐 아니라 대화를 촉진시키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역할을 하므로 여성들의 습관화된 언어행동 패턴으로 고정되어 여성 자신들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해볼 수 있다. 대화량 역시, 사적 상황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말을 적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대인관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들의 성역할 정체감과는 상관없이 남성들보다 더 말을 많이 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연구자의 추론일 뿐이 연구에서 그 원인을 찾아내기는 어렵다. 가까운 미래에 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그 원인이 규명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들면 외향성이나 불안수준과 같은 개인의 성격특성이나 연구가 이루어지는 상황적 특성(실험실 혹은 자연상황) 그리고 두사람의 남녀가 아닌 여러 명으로 구성된 집단을 사용한다면 보다 정확한 원인이 규명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또한 이 연구는 혼상상에서의 대화만을 연구하였으나 Smith, Noll 및 Bryant(1999)같은 연구자들은 남성

들은 혼성쌍에서의 대화보다 동성쌍에서의 대화에서 여성적 특성인 표현성을 더 적게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는가 하면 Fitzpatrick, Mulac 및 Dindia(1995)는 여성들은 혼성집단에서보다 동성집단에서 더 성역할 고정관념적으로 행동한다고 보고하였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혼성쌍과 동성쌍을 함께 포함한 연구가 수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개인의 언어양식은 성역할 정체감의 발달과 함께 발달단계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하는 연구는 물론 궁극적으로 언어양식의 연령에 따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종단연구가 수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남녀가 “화성에서 온 남성과 금성에서 온 여성”처럼 무조건 성에 따라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언어 사용에서 차이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장휘숙(2002). 여성심리학(제 2판). 서울: 박영사.
- 장휘숙, 최영임(2004). 대화에서의 중단: 본인의 성, 대화상대자의 성 및 친밀도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3), No. 3, 135-150.
- Anderson, K. J., & Leaper, C. (1998). Meta-analyses of gender effects on conversational interruption: Why, what, where and how. *Sex Roles*, 39(3/4), 225-252.
- Aries, E. (1996). *Men and women in interaction: Reconsidering the differe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asow, S., & Rubenfeld, K. (2003). "Troubles talk: Effects of gender and gender-typing. *Sex Roles*, 48(3/4), 183-187.
- Broverman, I. K., Vogel, S. R., Broverman, D. M., Clarkson, F. E., & Rosenkrantz, P. S. (1972). Sex-role stereotypes: A current appraisal. *Journal of Social Issues*, 28, 59-78.
- Carli, L. L. (1990). Gender, language, and influ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941-951.
- Drass, K. A. (1986). The effect of gender identity on conversation.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9(4), 294-301.
- Edwards, R., & Hamilton, M. A. (2004). You need to understand my gender role: An empirical test of Tannen's model of gender and communication. *Sex Roles*, 50(7/8), 491-504.
- Fitzpatrick, M. A., Mulac, A., & Dindia, K. (1995). Gender preferential language use in spouse and stranger interaction.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14, 18-39.
- Johnson, C. (1994). Gender, legitimate authority, and leader-subordinate conversat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9, 122-135.
- Nohara, M. (1992). Sex differences in interruption: An experimental reevaluation.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21(2), 127-146.
- Smith-Lovin, L., & Brody, C. (1989). Interruptions in group discussions: The effects of gender and group composi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 424-435.
- Smith, C. J., Noll, J. A., & Bryant, J. B. (1999). The effect of social context on gender self-concept. *Sex Roles*, 40(5/6), 499-512.
- Stryker, S. (1980). *Symbolic interactionism: A*

- social structural version*. Menlo Park: The Benjamin/Cummings Publishing Company.
- Tannen, D. (1990). *You just don't understand: Women and men in conversation*. New York: Morrow.
- West, C., & Zimmerman, D. (1983). Small insults: A study of interruptions in cross-sex conversations between unacquainted person. In B. Thorne, C. Kramarae, & N. Henley (Eds.), *Language, gender and society*. Rowley, MA: Newbury House.
- West, C., & Zimmerman, D. (1983). Small insults: A study of interruptions in cross-sex conversations between unacquainted person. In B. Thorne, C. Kramarae, & N. Henley (Eds.), *Language, gender and society*. Rowley, MA: Newbury House.
- Zimmerman, D. H., & West, C. (1975). Sex roles, interruptions and silences in conversation. In B. Thorne & N. Henley (Eds.), *Language and sex: Difference and dominance*. Rowley, MA: Newbury House.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04, Vol. 17, No. 4,

The effects of gender and gender role identity on the interruptions and the amount of talks in conversations

Hwee Sook Jang Young Im Choi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the gender and the gender role identity on the interruptions(negative and positive) and the amount of talks in conversations. 44 male-female pairs of college students had dialogued each other about a given subject in the experimental situation. Using 2x4 factorial design 9 hypotheses were formed. Planned analysis revealed that masculine man and woman and androgynous man used more negative interruptions than feminine and undifferentiated man and woman. Also woman used the more positive interruptions and talked more than man regardless of the person's gender role identity.

Keywords: conversations, negative interruption, positive interruption, amount of talks